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4:4)

이 말씀의 의미는 심오하다.

우선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성적 존재로 진화한 동물로 받아들인다.

생물학적이거나 유전학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생물이다. 다만 왜 죽는지, 왜 어떤 사람은 병에 약한지, 왜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실패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존재라고 설파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죄책감에서 벗어나 흥미진진함을 향해 도전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한다.

기계공학자들은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큰소리친다. 이들은 여전히 테크노피아를 지향한다.

지구과학자들은 인간을 파괴자로 규정하고 세상이 망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구에 현존하든 생물이거나, 멸종된 생물 가운데 스스로를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런 현상이 진화의 정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물질로 규정하고, 정신이란 물질이 생산해 내는 에너지 정도로 이해한다. 사람은 충분히 보살피면 주면 행복한데,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행하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든 자들을 없애면 세상은 지상낙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없다면 세상은 비로소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아무튼 그동안의 보고서를 간추려 보면, 인간은 놀라운 존재이지만, 상당히 엉뚱하고 위험스런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아이러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

성경은 무어라고 주장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나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세상을 망치는 존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과학이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거나 측정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이후로 과학적 판단은 아리송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남았다. 심지어 눈에도 보이지 않고 기계로도 측정되지 않는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대한 가속기를 건설하는 열정을 보여가면서 미시세계를 탐구해 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아리송이다. 과학적인 결론 자체가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고 나온다.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더 판타스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을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2:1)

그러나 죄인은 인간의 실존일 뿐, 인간은 자신의 실존적 문제에 골몰하게 되면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다.

왜냐면 죄인으로서의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에 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정답이다.

어떤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게는 필요하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 읽기 쉽고 이해되기 쉬운 것부터 읽으라.

항상 예배를 사모하라. 경외감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